



남원 동충동서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과 간담회

남원시 동충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문훈)는 지난 6일, 2층 회의실에서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더운 여름에 지역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함과 동시에 환절기 건강관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풍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 어르신은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과 함께 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문훈 동충동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이 되시길 바라며, 남은 일정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현혈 4랑 콜라보레이션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10일 2023 현혈 4랑 콜라보레이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4일 전북도와 전북혈액원이 함께한 전라북도 도시 현혈의 날 선포식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혈액수급을 지원하고 현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 관내에서 진행했다.
전주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현혈 4랑 나눔 단계 흰 티셔츠에 빨간 풍선을 들고 전주 시내 곳곳을 돌며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아주자동차대, ICC 분야 공유·협업 협약

전주대학교 IINC 3.0 사업단은 지난 6일 ICC(기업협업센터) 특화 분야의 상호발전과 협력관계를 통해 공동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아주자동차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학교는 자동차산업 분야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및 대학 간 장비·특허·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대학 자원 DB 공유 플랫폼을 통해 통합적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ICC 간 공동 연구, 포럼 간담회 등 산학연 협업 활동을 지원하고, 산학연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유 협업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원광보건대 비전옵틱스, 농촌재능나눔 봉사활동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범) 안경평화와 전공의 봉사동아리인 비전옵틱스가 10월 7일 익산시 낭산면 오미마을, 죽산마을 10월 8일 남원시 보절면 양촌마을과 주천면 숲속마을길 마을을 찾아 재능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남원의료원이 밝혔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봉사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근용 안경을 처방해 보급하고, 착용 안경의 수리 조정과 세척해 편안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안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공 관련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도·관광협회, 관광산업진흥 유공자 20명 표창장 수여·격려

전북도와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광관계자 격려를 위해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장을 비롯한 관광단체 및 업계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관광객 유치, 관광거점 조성 등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여 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특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관광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광메카 이벤트로 '가칭'세계한식대회'를 개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전북의 미식을 특화하는 관광목적지로서 전북의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환대서비스 실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전북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도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 케이-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라북도 비전 선포를 통해 전북형 위계이전, 치유관광 등 트렌드를 반영해 변화된 관광환경에 맞는 관광산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인책 마련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우석대, 제104회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출정식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10일 본관 1층 로비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에 우석대는 태권도·사격·여자배구 등 8개 종목에 57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출전 종목으로는 태권도 4명 사격 7명 여자배구 12명 △남자배구 10명 △펜싱 4명 △검도 8명 △농구 12명 △유도 2명 등이다.
이날 우석대에 따르면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여진(태권도학과 4년) 학생과 제1회 아시아태평양농인 유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현아(스포츠지도학과 1년) 학생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 사격과 검도, 펜싱도 입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여자배구부가 실업팀과 맞서 메달 도전에 나선다.
남천현 총장은 이날 출정식에서 "대학과 각 시도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백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우석대학교 체육회에서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스포츠마사지와 테이핑 등 전공연계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청렴협의회 '해찬솔' 청렴다짐 서약식 개최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는 지난 6일 무주와 덕유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5개 기관·기업 대표와 함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청렴문화 선도를 위한 청렴다짐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016년부터 무주군 무주경찰서 등 지역기관·단체와 청렴협의회 '해찬솔'을 구성하여 청렴활동 공유, 봉사활동 실시로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 중이다.
이번 행사는 황인홍 무주군수, 남기재 무주경찰서장, 조수남 무주양수발전소장, 배성수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 김현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참석하여, 공공기관·기업의 청렴 리더로서 알선·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데 앞장서고, 직원들이 공정한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물론, 지역사회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짐하고 서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청렴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 받아들이는 게 아닌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평생 덕목이다."라며 "특히 공직자는 그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청렴협의회를 통해 조직과 지역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호 기자

완주군, 세계적인 바리톤 성악가 고성현 교수 홍보대사 위촉

완주군이 지난 8일, 제11회 완주와이드&로컬푸드 축제 폐막식에서 바리톤 고성현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군은 완주군의 문화·예술 분야 홍보와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고성현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고성현 교수는 이탈리아 푸치니 국제 콩쿠르, 이태리 밀라노 국제 콩쿠르,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 극장 국제 콩쿠르 등 해외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육관문화훈장 대통령상, 제32대 난파음악상 등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바리톤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성현 교수는 올해 8월 완주군 봉동읍으로 귀촌했다.
고성현 교수는 완주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봉동 프랑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 완주군 홍보대사로서 완주군



의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를 알리는데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주로타리클럽, 9명에 장학금 전달식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로타리클럽(회장 임규삼)은 회원 업체인 방산위의 한우 송년잔치에서 9명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2023년 1학기 재(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격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로타리 정신에 입각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과 문화사업의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총 560만 원이다.
임규삼 회장은 재(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 축하의 인사와 함께 "학생의 본인인 학업뿐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인재로 성장해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제로타리 3670지구 전주 로타리클럽은 봉사단체로 장학금뿐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구절초 축제장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전북도는 10일 정읍 구절초 축제장에서 1회용품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표 가을꽃인 구절초 축제를 즐기며 오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축제는 즐기며 환경을 돌보자는 의미로 '1회용품 줄이고(O!) 축제는 즐기고(O!)'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머그컵을 나눠주며 일상생활 속에서 다회용품 사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이 일상생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운동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호원대, 전국요리경연대회서 대상 수상

호원대학교 고창준·이주원 학생(호텔외식조리학과 1년)이 지난 7일 수원음식문화박람회에서 열린 '제12회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에 호원대는 10일 총장실에서 수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강희성 총장, 홍인기 호텔외식조리학과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제12회 수원전국요리경연대회'는 (사)한국조리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수원 맛 오미(五味)'를 주제로 수원 향토음식의 가치를 높이고 모두가 좋아할 만한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수원시민의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행사다.
이번 대회는 2개 종목으로 진행, '창작요리 라이브 경연'은 '수원 맛 5채' 등 수원을 대표할 음식을 주제로 2인 1팀을 구성, '푸드 카빙 라이브 전시 경연'은 자유주제로 개인 10팀이 경연했다.
대회에 출전한 고창준·이주원 학생은 한 팀을 이뤄 수원 소금갈비 양념을 이용한 토네이도 스테이크와 고추장 소세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주원·고창준 학생은 "열심히 연습한 결과 호원대 호텔외식조리학과와 위상을 드높인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통합훈련센터, 일학습병행 사례 우수상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통합공동훈련센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게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평가 및 자격 인정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전주비전대학교 통합공동훈련센터는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P-Tech 연계 우수사례, 기업현장사범(PI)담당자 소풍 활성화 사례, 내외부평가 성과향상 노력 및 성공사례를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2015년 일학습병행 유니테크(Uni-Tech)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P-TECH사업, 그리고 2023년에는 재직자 유형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기자